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2> 맑고 깨끗한 지혜는 선정에서 생겨나

모든 수행은 제정해(戒定慧) 삼학(三學)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부처님의 계율(戒律)을 지나야 좌선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선정(禪定)이 생기고, 이 고요한 선정으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慧)가 생긴다. 먼저 지혜가 있고 나서 선정에 들어간다고. 먼저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옳은 이치가 아니다. 선정이 없는 지혜는 잡다한 지혜가 아니고, 계율이 없는 선정은 참된 선정이 아니다. 계율이 아니면 선정은 완성되지 않고 선정이 아니면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누어 분류해 보면 스물다섯 종류가 된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과거현재 미래의 모든 수행자들도 이 법을 실천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없다. 선정에서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에 이른 것이니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사마타관(奢摩他觀)' '삼마발제관(三摩鉢提觀)' '선나관(禪那觀)'의 수

사마타 · 삼마발제 · 선나 등 관법수행의 바탕 선정의 힘 깊어지면 육신의 생사 자유로워져

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이 세 종류의 관법(觀法)에 모든 수행의 바탕이 들어있으니 그 내음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사마타관'이란 부처님의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고요한 경계'를 위하여 점차 수행을 뛰어 나가는 것이다. 이 수행을 하면 어지러운 생각들과 번거로운 알음알이들이 사라진다. 이 자리에 밝은 지혜가 생겨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이 사라지니 그 안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생겨난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사마타관'이라고 하며 '정관(靜觀)'이라 말하는

도 한다. '사마타'는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적정(寂靜)'의 뜻을 갖고 있다. 둘째 '삼마발제관'이란 부처님의 세상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이 세상 모든 경계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에 실체가 없는 허깨비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인연의 실체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허깨비와 같은 경계들을 제거하게 되면 수행자는 그 과정에서 편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 힘으로 중생계의 잡동년호를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면서 고요한 마음과 밝은 지혜를 잃지 않는 이 방법을 '삼마발제관'이라고 하고, 환관(幻觀)이라 말하기도 하며 '위빠사나'라고 하기도 한다. '삼마발제'는 모든 법이란 인연이 모이면 허깨비처럼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허깨비처럼 사라진다는 '변화(變化)'의 뜻을 갖고 있다.

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깨달음으로서 '적멸'의 경계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는 곳이니 방편을 '선나관'이라고 하며, '적관(寂觀)'이라 말하기도 한다. '선나'는 모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하다는 '적멸'의 뜻을 갖고 있다. 대중 정리해 보면 '사마타관'은 색(色)이 곧 공(空)임을 알고 허망한 것을 버리고 공성(空性)인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정이고, '삼마발제관'은 공(空)이 곧 색(色)임을 알고 법계(法界)에서 일어나는 연기법(緣起法)으로써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선정이다.

'선나관'은 이 두 가지 경계를 동시에 이루면서 이 두 가지 경계를 뛰어넘어 중생의 영역을 초월하려는 부처님의 선정이다. '선나'의 '적멸(寂滅)'에서 '적(寂)'이란 사마타 '적정(寂靜)'의 '적(寂)'과 같고, '멸(滅)'이란 삼마발제 '환멸(幻滅)'의 '멸(滅)'과 같으니, '선나관' 속에 '사마타관'과 '삼마발제관'이 녹아 있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이런 선정의 힘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超凡入聖 坐脫立亡者 皆禪定之力也. 故云 欲求聖道 離此無路. 범부가 성인이 되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기도 하는 것은 다 선정에서 나오는 힘이다. 그러기에 '성선된 도를 찾으려면 선정을 떠나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한다.

선정을 잘 닦은 사람들은 '좌탈입망(坐脫立亡)'을 한다고 한다. '좌탈(坐脫)'은 앉아서 죽는 것이요 '입망(立亡)'은 서서 죽는 것이다. '좌탈입망'이란 선정의 힘이 깊어지면 육신의 생사에 자유재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앞서간 고승들이 고통 없이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다 선정의 힘 때문이다. 부처님의 온갖 지혜와 덕행도 모두 이 선정의 힘에서 나오니, 성선된 부처님의 도를 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만 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llust.org)

지심귀명례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삼성각(三聖閣)

어느 불교학과 노교수는 불교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보응성(相互普應性)'이라고. '조건 없이 서로를 넓게 비취 끌어안는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불교사상의 포용성과 수용성이 탁월하다는 뜻일 겁니다. 하긴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

국, 한국, 미얀마, 태국 등 전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현지 전통문화와 큰 마찰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삼성각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면서 생겨난 전각입니다. 삼성각은 산신(山神)과 칠성(七星), 독성(獨聖)을 한데 모신 건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토속신앙을 불교적으로 수용한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삼성각에 모셔진 산신과 칠성과 독성은 각각 독립된 전각에 봉안되기도 합니다. 산신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악인 점에 비추어 쉽사리 정신적 의지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얀 수염의 산신할아버지는 호랑이와 풀베를 이

두고 있지요. 호환(虎患)에 대한 공포와 외경심이 만 들어낸 상징이었을 겁니다. 칠성은 수명을 담당하는 북두칠성의 화신으로 신앙의 뿌리가 대단히 깊습니다. 북두각(北斗閣)이라고도 하지요. 독성은 나쁜존자(邪障者)라고 하며 홀로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깨달아 독성(獨聖)이라고 합니다. 사찰에 따라서는 산신과 용왕과 독성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고려말의 삼대성인(三聖僧)인 지공(智空), 나옹(懶翁), 무학(無學)의 삼성(三聖)에 칠성과 독성을 봉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3강 유교, 노장, 불교, 법가, 그리고 시정의 사유

동아시아에는 대략 다섯 개의 길이 있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이와 차이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내가 정리해 본 것이다. <금강경> 원고를 앞에 놓고 있다? 북의 핵심핵 소식을 듣고는 휘황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묵은 원고로 대신한다. 오늘, 법가의 길과 사마천의 현실주의가 가슴 속의 사투리다.

이 생겼다. 이들은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이하여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가 만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길을 정했다. 법의 징조를 읽는 천문과 땅의 의미를 읽는 지리가 발달했던 바, 처음 사람들은 그 상징적 지시에 따라 의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었다.

길이란 무엇인가
유형가 가사처럼 우리는 "오늘도 걷는다." 동물과 달리 본능이 길을 열어주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집단적 선택에 의해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길을 가리키는 도(道)라는 글자는 '천안 삼거리 같은 갈림길(歧)에서 머리(首)를 어디로 향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형상으로 그려졌다. 이 주저를 겪고 파국히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처음 길이 생겼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길이, 앞 사람의 흔적을 보고 다른 사람이 뒤따르므로 길은 점점 넓어져 큰 길이 되었다. 처음 사상이었던 길이 그렇게 해서 문화가 되고, 이속고 전통이 되었다. 그 길을 의심한 사람들이, 가시뿔뿔에 새 발자국을 찍기 시작했고, 어느덧 수많은 길

공자가 걷은 길
공자의 유교는 천도(天道)의 상징적 역할과 결별하고, 인도의 독자성에 입각한 휴머니즘을 제창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각과 훈련을 통해 이룩해야할 인격의 이상을 제시하고, 그 바탕 위에 자리잡을 사회적 질서를 꿈꾸었다. "그날이 온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朝聞道, 夕死可矣)" 그러나 그 이상을 실현시켜줄 뜻있는 권력은 없었다. 나이 오십에 천하를 칠한(七十而後已) 공자는 인격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가 그린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화하자면 제도보다는 인격, 형벌보다는 감화에 의해 추종되는 사회였다. 공자는 인간의 덕성이, 추상적 이념과 가

치를 의식화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이라는 구체적 관계의 장에서 실천적으로, 이를테면 부모에 대한 효도, 연장자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육성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치의 관건은 제도나 규율이 아니라 이렇게 배양된 인격이었다. 그는 이 인식을 "도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도를 낚을 수 있다(人能弘道, 非道弘人)"라는 말로 요약했다. 당대의 권력과 후대의 비판자들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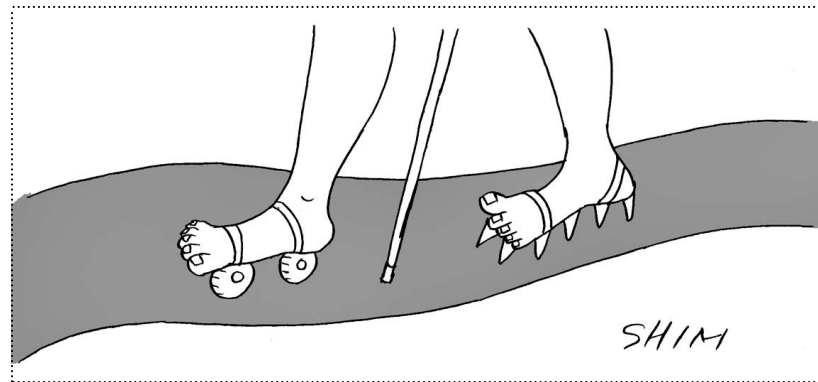
법가는 "유교의 원리로는 자식 교육도 기약할 수 없다"고 혀를 찬다. 유가의 길은 이를테면, 수주대토(守株待兔). 우연히 나무 아래서 죽은 토끼 한 마리를 건진 농부가, 아예 농사를 작파하고 나무 밑에서 토끼들이 밟혀 죽기를 기다린 어리석음에 견주었다. 한비는 말한다.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고, 그에 어긋나면 벌을 준다. 농사에 매진하고 국방에 기여할 때는 상을 주고, 쓸모없는 논쟁을 벌이거나

노장과 불교가 꿈꾼 길
<노자>의 첫머리는 이 모든 소란을 일거에 잠재운다. "너희들이 제시한 길은 진정한 인간을 위한 길이 아니다(道可道非常道)" 노장은 모든 형태의 억압과 권위를 거부하여 법가와 맞섰고, 한편 사회와 절연된 개인의 행복과 평화를 고취하는 점에서 유가와도 결별했다. 그 은둔의 개인주의자들은 말한다. "인간은 우주적 과정의 협력자이다. 그 우주적

게 드러난다. 자연은 유기적 전체로서 항상 법칙을 집행하며, 법칙 또한 자신의 유기적 법칙에 따라 완벽하게 동근 모습으로 드러난다. 거기 아무런 부족함도 남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다. 지식(gnosis) 혹은 깨달음이란 바로 그 사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의 삶은 이 위대한 통찰과 영웅적 수용으로 완성된다. 그것이 자연과의 합일이고, 반야바라밀, 깨달음의 완성이다. 노장과 불교는 이 실천적 통찰이 삶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노장과 불교는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인정 투쟁에 헛되어 기력을 소모하지 않으려 한다. 사회적 지위나 부 등에 신경을 덜 쏟기에 그의 삶은 자연스럽고 단순해진다. 그는 그렇게 남은 예너지를 회향하여 타인을 향해 쓸 수 있게 된다. 노장은 이 근검과 자비가, 불교는 무소유와 보살행이 세상을 건지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사마천과 헤강 최환기가 인정할 길
소시민들은 묻는다. "인간은 그다지 고상한 동물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물학적 삶에 충실하련다. 먹이를 찾고 짝을 찾는 이 욕망에 누가 짐을 뺄는가." 이 원리는 널리 수용된 보편적 원리이면서, 기이하게도 가장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천막꾸러기이기도 하다. 사마천은 현대의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농부들은 곡물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포획물을 공급한다. 기술자는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은 이들을 널리 유통시킨다. 이런 일은 강제나 교화, 징벌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기능과 역량을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적 질서로서의 도(道)가 아니겠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서 있나?



와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건전한 인격에 건 이 순진한 이상주의자를 비웃는데 익숙하다. 그렇지만 모든 일의 관건은 지식보다 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느냐가 그 일의 성과와 시비를 이미 가르는 것은 아닐까. 맹자의 말따마나 "어린이를 키우는 법은 배운 다음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아이를 향한 열려와 관심이 어린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이끌지 않았는가. 그것은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법가가 시행한 길
법가는 공자의 길이 너무 더디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격과 교양을 믿지 않고 법과 제도를 말한다. "옛 전통과 고전은 변화된 시대에 의미가 없으며, 인격을 통한 감화는 지나치란 인간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다."

때를 지어 건들거리면 벌을 준다. 법은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효용을 보장한다. 군주가 두 자루를 쥐고 있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손바닥보다 쉽다." 근대 시민사회는 전형적으로 법가적 인식 위에 세워진 체계이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통한 감화는 지나치란 인간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다."

덕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만 잊혀졌고, 정치적 동원으로 하여 집착하고 있다." 불교 또한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 불교는 노장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이 오랜 이기적 습관과 사회적 순치에 의해 가려지고 켜켜이 때가 덮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얼굴과 대면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바뀌는 영적 전환을 겪게 된다고 한다. 그 통찰 혹은 깨달음에서 세상은 투명하